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1714.86 -56.58		코스닥지수 ▼ 504.51 -19.49		유가(WTI, 달러) ▲ 31.73 +0.23		환율(원)		1USD 100¥	살때 1245.92 1170.49	팔때 1203.08 1130.23	1EUR 1CNY	살때 1397.48 183.38	팔때 1342.96 165.92

제주경제를 살리자... 예산 투입·소비 캠페인

판로 막힌 제주 수산물에 36억원 조기 투입
공직사회 중심으로 소비촉진운동 전개 방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조기투입은 물론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도내 수산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물수급안정기금 36억원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3만400달러로 전년

대비 22.4% 감소한데 이어 최근 소비 부진과 일본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산 양식광어의 경우에도 지난 9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차량에 활광어만 싣고 선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총 4개 사업에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투입한다

는 방침이다.

먼저 어선어업 및 양식광어 등 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를 국내·외 소비촉진 마케팅과 홍보에 10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바이어 상담과 판촉행사 경비 지원, 국내 소비자 대상 제주수산물 할인행사(온·오프라인)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기로 했다.

이어 해녀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 가격과 해녀어가 생계안정을 위해 17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생산·유통되는 소라 1kg당 1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

려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수산물가공업체의 택배비 일부(건당 10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생했어요! 고마운 가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되면 공무원들은 식사,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확진자 방문 점포를 이용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간식·생필품 구입에도 해당 업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산 월동채소류 가격 희비 교차

당근·양배추 상승세... 무·마늘은 보합·약세
평년·전년대비 생산량 급감 농가소득 “글썸”

제주산 월동채소인 당근과 양배추의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대동 등 약기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봤던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공급부족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만족할 만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면 월동무와 마늘은 출하량 조정 및 과잉생산에 따른 물량 적체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은 8만t이며 이 가운데 4만5000t(56%)이 출하된 상태다. 생산량은 평년 10만4000t에 견줘 23% 줄었고 전년도 9만4000t에 비해서도 15%가량 적은 양이다. 현재 대정·한경지역을 중심으로 80% 이상 출하가 이뤄졌고 한림·애월지역은 70%대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은 1망(8kg기준)당 9139원으로 평년 5878원과 전년도 3491원에 비해 높다.

당근은 잔여물량이 없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량은 3만

1000t으로 평년 5만3000t보다 39% 적고, 현재 2만9000t(95%)이 출하됐다. 가격은 1상자(20kg 기준)당 3만8961원으로 평년의 2만1070원, 전년도 2만1112원보다 높다.

이에 반해 올해 초반까지 좋은 가격을 유지했던 월동무는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무 저장이 이르고 평년대비 많지만 저장성이 저하되고 면적 조절 등으로 가격 형성이 미흡한 상태다. 1상자(20kg 기준)당 8799원으로 평년의 1만2351원보다 낮고, 전년도의 7415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마늘은 지난해 과잉생산으로 현재 간마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kg당 3917원에 거래되면서 평년 6528원과 전년도 5710원에 각각 견줘 모두 가격이 낮다.

한편 양파도 올 겨울이 따뜻해 평년보다 첫 출하시기가 10일가량 앞당겨졌지만 가격은 중국산 수입양파로 인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봄의 파도를 따라... 16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서퍼들이 꽃샘추위 속에 서핑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인구이동도 ‘1인시대’... 제주 지난해 80%대

순이동 2936명 8년 전 회귀
2017년 이후 순이동 하락세

전국적으로 거주 목적이나 직업을 찾아 거주지역을 옮기는 ‘1인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전·출입인구 10명당 8명이 혼자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국내인구 이동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시도별 이동자의 경우, 전입자는 9만4966명이고 전출자는 9만2030명이다. 순이동은 2936명

으로 인구유입이 시작된 2011년 2343명으로 8년 만에 회귀한 셈이다. 2012년 4876명으로 전년도에 견줘 2배 이상 늘며 순이동 인구가 급성장하며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구이동의 패턴도 1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시도 내 1인 이동 구성비는 70.6% >시도 간 1인 전입 구성비는 83.0% >시도 간 1인 전출 구성비는 84.6%로 각각 조사됐다.

제주로의 전입은 경기(25.4%), 서

울(24.2%), 부산(7.5%) 등의 순이다. 그 사유는 주택(32.1%), 직업(26.2%), 가족(23.4%) 등이다. 전출은 서울(26.4%), 경기(24.5%), 부산(6.9%) 등이다.

지난해 연령별 제주 순이동 인구는 >0~4세 404명 >5~9세 396명 >10~14세 15명 >15~19세 -226명 >20~24세 -866명 >25~29세 -163명 >30~34세 521명 >35~39세 951명 >40~44세 504명 >45~49세 471명 >50~54세 449명 >55~59세 217명 >60~64세 171명 등이다. 이후 연령대는 100명 이하의 규모로 증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은행, 여신금융지원 확대 대출기한 연장·원금상환 유예

제주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신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은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규 대출지원 확대에 이어 추가로 올해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4106개 업체(총 대출금액 6669억원)와 연말까지 원금분할상환 중인 1756개 업체(총 대출금액 2114억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은행은 우선 올해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조건 없이 1년 간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또 연말까지 원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분할 상환 기일과 만기일을 1년 유예할 계획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받는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등 내점이 어려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로 연장을 하고 향후 서류를 보완하는 등 가급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현주 은행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콜센터 1588-0079, 백금탁기자

제주도·제주TP·제주평가단 힘 모았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건강비누
5만개 생산... 도민사회 보급

제주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비누가 개발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급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공공의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사업평가단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클렌징 건강비누’를 개발해 도민들에게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할 건강비누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제주 유용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꽃굴과 제주초피나무 추출물을 활용해 제작된 제품이다.

건강비누 생산물량은 모두 5만 개다. 1차로 13일까지 2만 개를 생산했고, 2차로 오는 20일까지 3만 개를 추가 생산할 예정으로, 보급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보급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배부방식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도내 115개 사회복지시설과 43개 읍·면·동을 방문해 전달하게 된다.

제주꽃굴은 완숙과에 비해 헤스페레딘(Hesperedine), 나리루틴(Narirutin)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10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

또한 항균 및 항염증 효능이 뛰어난 리모넨(Limonene) 성분과 탁월한 진정효과를 갖는 리날룰(Linalool) 성분도 다량함유한 것이 확인됐다.

고대모 기자 bigroad@ihalla.com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쉴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쉴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쉴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표면 탄소화
수축과 변형이 없음

5분후 표면탄소화층
화염을 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연소 후

쉴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